

연중 제 26 주일

기도서 445 번(B해)

제1독서: 민 수 11, 25-29
 제2독서: 야 고 5, 1-6
 복 음: 마 르 9, 37-47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마르 9, 41).

□ 강론



추석없는 이웃

김 순 태 신부

오늘은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햅쌀로 송편을 빚어 조상님께 감사의 차례를 지내고,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나누며, 올해에도 건강과 화평함을 주신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혼잡스러운 속에서도 고향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모든이가 이렇게 고향의 뿌리를 찾는 것은 인간의 어떤 회귀성 본능 때문만이 아니라, 그만큼 추석명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기는 축제이기 때문이라.

며칠전 각지에서 모여온 농민들이 중앙성당에서 농민대회를 가졌다. 그 모임은 불행스럽게도 풍년을 감사한다거나,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위한 기쁨의 잔치가 아니었다. 배운것 없고 가진것 없기에 그들은 친대받고 우롱당하고 있다고 소리를 드느였다.

명만을 믿고 휴만을 만지며 살아가는 순박한 농민들-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버린 오늘의 현실에서 그들은 분명 삶의 용기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어디 그뿐일까?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뿌리박혀 있는 구조악들-독재, 억압, 폭력, 특권의식, 부정, 부패, 착취, 위선, 가난, 소외, 부자유, 생명경시, 방종-

우리는 한가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러한 구조악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아니 적어도 줄여가 지지 않는한 진정한 기쁨의 축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버려라...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 버려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버려라”(마르 9, 43~47). 적당히 얼버무리는 태도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신다.

진정한 기쁨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분명한, 그리고 확고부동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진리의 길은 외길이며, 그 외길은 타협을 배제한다.

먹을것과 입을것이 조금 부족했어도 함께 즐거워했던 추석명절-그러나 먹을것과 입을것이 있어도 즐거움이 덜한 오늘의 추석명절은 왜일까?

그것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 형제들이 너무 많은 때문은 아닐까?

그들도 함께 이 명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성심학교 종교감)

소리 이 땅의 바벨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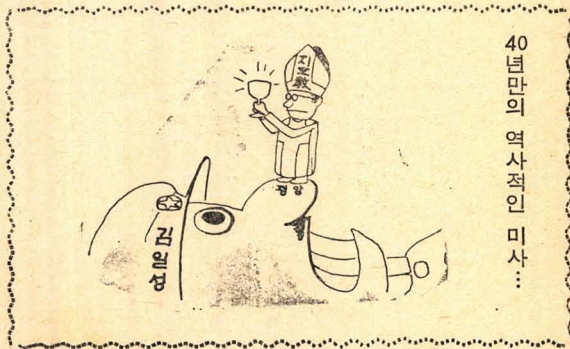
사람끼리, 그것도 같은 말을 쓰는 민족 사이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두워서 불을 「켜」라는 데도 기왕에 켜진 불마저 「꺼」버린다면 이 얼마나 가슴터질 일인가!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시에 보았던 남과 북 사이를 가로막은 언어의 거리감, 마치 바벨탑의 이야기를 읽는 기분이다.

새 우리말 큰사전은 바벨탑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11장)에 나오는 전설적인 거대한 탑. 방자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이르는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으나 하느님이 저주하여 그 사람들 사이에 방언을 쓰게 하여 서로 말을 알아 듣지 못하게 되므로, 혼란이 일어나 공사를 끝낼지 못하였다 함.」-언어의 혼란을 인간의 방자하고 교만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어키스를 우리는 옛부터 꼭마단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를 「교예」라고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남쪽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북쪽 사람은 이를 「교예」로 알아듣고 대답을 하다보니 서로 답답하고 혼란만 일어나게 되었다. 해수욕을 모향산으로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많이 웃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웃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는 그쪽의 현실이 안타가울 일일 뿐이다. 해수욕이라는 말 대신에, 바다로 물놀이 갔었느냐고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있다. 또 그렇게만 배워온 국민학교 어린이의 말을 탓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 이 한반도에 바벨탑을 세웠는가. 우리를 갈라놓은 장벽이 참으로 높다. 오직 겸손한 만남,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남, 천당에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바벨탑에 걸린 보름달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도록.

숲 정 이 산책



성서교실 26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 16:24)

이 말씀은 예수가 수난의 예고를 한 후에 한 내용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우리는 수없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놓고, 줄임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십자가가 있다는 말인데, 말하자면 「십자가」는 사물 자체가 아니고, 사물과 그것을 짊어질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다. 「십자가」는 그 사람과 하느님만이 아는 것이다.

①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치욕스런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참으로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근본 의(義)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느님 앞에서 가장 저주스러웠다(갈라 3:13). 그리스도는 참으로 낭패했던 것이다.

②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다운 소이(所以)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구원의 희망과 위로가 있다.

③ 제자는 스승보다 낮지 못한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답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상이다. 그리스도 이상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상의 사업가, 도덕가, 성인(聖人)이다. 그리스도 이상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이다.

④ 「십자가」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는 것,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시몬이 도와주었다.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지려고 하는 것, 여기에 근본 「잘못」이 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포루스(Cristophorus) 처럼,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이고 비결이다.



□ 하느님 백성의 예배—추석

***** 선조를 기억하는 차례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은 추석과 설날일 것이다. 이때는 먼곳에 사는 형제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명절을 함께 지내며 이 자리에 함께 제사야 할,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집안 어른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낸다.

한때는 우리 천주교회에서도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규정되어 금지되기도 했다. 지금도 차례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 종파도 있다.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배례드리는 것이나 돌아가신 선조들께 배례드리는 것은 다 같은 것이며 엄숙한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

든지 살아계시든지 우리는 하느님 안에 모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차례를 제대로 지내지 않음으로써 무질서와 불효가 생기고 가문, 가족, 부모님께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고 책임의식, 뿌리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 차례를 정성껏 지내는 가운데서 생명의 연대의식, 가문과 부모님께 대한 존경심과 책임의식이 생기며 가정과 사회가 건전해지고 질서가 있게 될 것이다.

추석을 맞아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도록 권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예식 절차를 제시해 본다.

□ 미 사

될 수 있는 대로 가족이 모두 함께 아침미사에 참여하여 본당 공동체와 함께 선조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 차례 예식

1. 성호
2. 성가: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른다
3. 독서: 아래 제시하는 성서구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봉독한다. ①요한 14,1-14 ②요한 15,1-12 ③요한 17,1-26 ④루카 2,41-52 ⑤마태 5,1-12 ⑥로마 9,1-18 ⑦로마 12,1-21 ⑧ I 코린 13,1-13 ⑨에베 5,6-20

4. 가장(家長)의 말씀

5. 큰절: 서열순으로 영전에 큰절을 드린다(남녀 가리지 말고)
6.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기도서 참조)
7. 참석자는 모두 선자들의 기도를 바친다
8. 성가: 성가집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9. 주의 기도: 다함께 바친다
10. 식사: 차례 음식을 나눈다(음복, 飲福)—사랑과 일치 의 식사
11. 성호: 성호긋는 것으로 예식이 모두 끝난다

웨딩드레스 · 약혼복 드레스 대여

금수 웨딩드레스
금수 미용실

신부화장·파마·맛사지·부케
신부야외촬영·비디오촬영
(신자분은 특별 할인함)
전주시 경원동 관동로변
민정회관과 소서빌딩 사이
☎ 2-8507
주, 박 영 숙(주리아)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①
•각종 속 일체 |
•커벤지 |

서울 주 단

☎ ②453 ②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대우전자 비디오 테프 특약점
교육용, 섬서용 각종 프로 테프 판매 대여

영진비디오

결혼 회갑 각종 문화행사 특수촬영
☎ ④094 전주백화점 옆
채 석 자(글라라)

교 구 소 식

1. 3지구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10월 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청구여상(구 시공관)
2. M·E 8차 전국대회: 10월 3일, 장소-서울 서강대학교
※ M·E 가족의 많은 참가 바람
3. 제1차 제3기 레지오 피정: 일시-10월 3일 10시~17시, 장소-가톨릭센터
참석대상-①제1차 제1·2기 수강자 전원 ②간부 및 단원, 참가비-3천원
4. 여자 수도 성소 피정
주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0월 5~6일, 접수-5일 오후 4시
대상-여고 1학년 이상·대·일반, 회비-4천원,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미사도구·필기도구·세면도구
5. 감사합니다: 농민대회에 참여하여 성원하여 주신 신부님과 교형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 전주교구 푸른군대(제14차) 월례피정: 일시-10월 3일 10시~17시(과천미사 있음)
장소-전주 덕진성당(☎ ② 2 1 8 2), 강사-박성팔 신부님(장수분당)·전윤진 수사님(프란치스코회), 준비-접수비(1천원, 도시락 지참), 피정 및 미사도구
대상-일반 남녀 모든 교우
7. 시민감좌: 학원법 제정 왜 반대하나?-연사: 이돈명 변호사
30일 저녁 8시, 주현동 성당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일 시 : 9월 29일(일요일) 오후 4시
장 소 : 전주지구 교회묘지(술개재)
집 전 : 총대리 신부님과 전주 시내 사제단
미사예를 접수: 미사전에 각 본당 사무실에 접수 바람
별초 사례금: 필히 묘지관리 위원회에서 비치한 사례함에 넣어주시기 바람
기 타 : 주일미사는 각 본당에서 참석하시기 바람

전주지구 교회묘지 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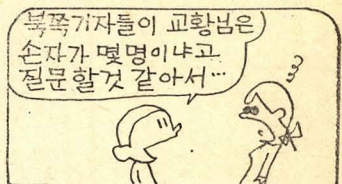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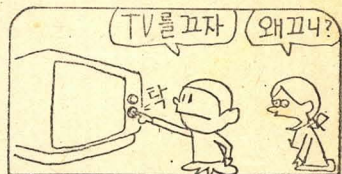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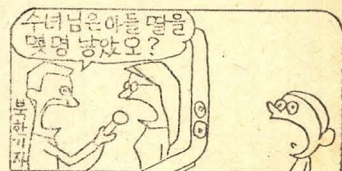
♣ 잠깐!

'85 청소년대회 「젊음의 한마당」을 마치고

모처럼 가진 청소년을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 행사가 진정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곳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300여명이 함께 자리하여 과연 배움과 놀이의 마당을 기쁘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눔은 첫째로 교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어린 지원이었습니다. 둘째로 본당 공동체의 적극적인 동참이었습니다. 셋째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것을 가꾸어준, 이 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해 준 봉사자들의 노력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돋보인 것은 청소년 자신들의 이 행사에 주인의식을 가진 적극적인 참여요, 전주 시내 본당의 걸심나눔을 위한 후원이었습니다. 이에 결실 맺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를 계기로 청소년을 위한 사랑이 지속되어 청소년들에 대한 교회와 기성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표현을 기대합니다. (교 육 국)

요심이 (634) 김병오



해성 동창회

제10차 해성 중·고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 요망합니다

일 시 : 1985. 10. 9.

오전 10시

장 소 : 해성중·고 대강당

안 건 : 임원선출 및 체육대회

회 비 : 3,000원(중식제공)

전주 해성중·고 동창회

회장 김 인 군

1개월 무료 자격증취득 보장
개인지도, V.T.R 교육
취업보장, 개업알선
미용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으신분 상담 환영

현대 미용학원

중앙성당 건너편
코야백화점 앞
김 금 순(테베사)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렌터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 베드로

로 사 리 오 의 묵 상

저자: 김보록 신부 발행: 생활성서사
4·6판, 150면, 값 1,000원

내 용: 각단 신비의 자세한 묘사
묵상 방법의 구체적 설명
로사리오 영성의 서술
로사리오 역사의 정확한 기술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 1 지구 주일학교 어린이 체육대회 : 10월 3일 해성학교 운동장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영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오늘 미사는 평소의 주일과 같읍니다, 각 가정의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본당의 날 행사 : 10월 6일 중앙여고 교정에서 헌지미사-오전 9시 30분, 도시락 준비 모두 참여바랍니다
이날 본당미사-오전 6시, 저녁 7시, 아파트-오전 7시
 - 축! 본당 교직자회 발족 : 고문단-이상용·손금만·최형·이흥재, 회장-조해형, 부회장-박춘근·양순례, 총무-이종선, 재무-조홍기, 감사-박태복·김계수,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첫 임원회-10월 1일 오전 10시
 - 견진성사 일정 : 10월 27일 본당에서 견진성사 신청마감-10월 13일까지 (영세증명서첨부)
 - 전자출판 기금 신입합시다 : 오용규-10구좌, 임철환·박옥해-각 4구좌, 윤찬주·최영숙·문요안나-각 2구좌, 장명순·설희순·이홍자·이정자·이계순·이부덕·송연심·전경자·오남석·유기봉·염귀녀-각 1구좌씩, 계-175,000원 누계-2,920,000원
 - 공소 순회미사 : 10월 5일 신교리공소의 미사는 연기
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중앙여고로 나오세요
 - 차주전례 : 제2조, 차주는 제3조가 담당입니다, 차주의 미사는 중앙여고에서, 차질없이 준비합니다
- 지난주 신축금 : 127,000원 교무금 : 573,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 첫 철례 : 10월 5일 저녁 7시 30분
 - 반독주 : 김종택 신부님 제실때 반에서 돌러가며 바치던 묵주를 성당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까지
 - 복자 부녀회 : 10월 5일 오전 10시
 -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 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첫영성체 교리 : 10월 4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국교 3학년 이상
 - L·M 옥외행사 : 10월 6일 공식미사 후, 구이저우지
 - 축! 결혼 : 10월 3일 12시, 복자성당 신랑-최운석(요셉), 신부-주은영(마리아)
 - 금주 성당침소 :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차주 성당침소 :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 금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강기연 ②정동민 차주전례 : 해설-정운주, 독서-①천 건 ②조성호
- 지난주 봉헌금 : 180,420원 교무금 : 550,85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세요!
 - 금주전례 : 해설-문병주, 독서-①강창오 ②안현기 차주전례 : 해설-안현주, 독서-①김영신 ②김병주
 - 사도회 월례회 : 10월 5일 저녁미사 후
 - 구역 대의원회 : 10월 6일 공식미사 후
 - 다음주일 10월 6일은 군인주일 : 특별 2차헌금 있음
 - 오늘은 아동미사 학생미사 없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03,250원 교무금 : 107,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사도회 : 10월 6일 주일 공식미사 후
- 자모회 : 10월 2일 오후 3시
- 견진성사 : 11월 3일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10월 13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 교무금 미납하신 분은 속히 완납 바랍니다
- 수녀님 피절 : 이철히르다 수녀님께서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공소 순회미사 : 오늘 마음리공소-오후 3시 광곡리-오후 5시에 있음

- 예비자 교리 : 추석에는 없읍니다
- 미사시간 안내

요 일	시 간	
토 요 일	오후 4시, 저녁 7시 30	어린이미사 일반 특전미사
일 요 일	새벽 6시, 낮 10시 30 저녁 7시 30분	
월 요 일	새벽 6시	
화·수·금	저녁 7시 30분	
목 요 일	오전 10시	어머니미사

8.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 독서	2 독서	기 도
첫 미사	최창림	김길석	김숙임	서 춘 옥
공식미사	김배근 문미숙	한상철	차상열	선교 분과
저녁미사	김상곤	송용남	이명숙	김 순 자

- 지난주 봉헌금 : 일반-321,509원 중·고생-12,400원 주일학교-9,710원 계-343,619원 교무금 : 558,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살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 ※ 보좌신부님 본명 축하식 : 10월 6일 공식미사 후 프란치스코 축일-10월 4일
추석 합동 위령미사 접수 바랍니다
- 성가정회 : 10월 1일 12시-미사준비
 - 유아세례 : 10월 5일 오전 11시
 - 주일학교 성지순례 : 10월 6일 아침 6시 30분 집합 어린이-2,500원, 학부모-3,500원 어린이들 신앙교육에 어른들의 특별한사랑 부탁드립니다
 - 부활반 예비신자 모집 토요일 학생교리 : 10월 5일부터 (오후 4시 30분) 일요일 일반교리 : 10월 6일부터 (오전 11시) 수요일 지성인교리 : 10월 9일부터 (오후 8시)
 - 수세식 화장실 공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3만원-김인선, 1만원-주양근·홍제춘·정진숙·이연순·이용근·김경이·장금옥·이순기·이기순, 3천원-유덕성
 - 철례 : 29일-미카엘라, 10월 1일-테레사
 - 다음주 봉헌담당 : 김인찬 부부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영희, 독서-①김동원 ②최정석 공식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신일균 ②장금태
- 지난주 봉헌금 : 955,230원 (감사헌금 박공례-1만원) 교무금 : 871,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 10월 6일은 군인주일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군장병을 위해 기도와 헌금에 정성 기울입니다
 - 푸리아 회의 : 다음주 오후 2시 3시 20분-아치에스 행사 끝나고 베지오 교육 있음
 - 성모기사의회의 : 금주 토요일 (5일) 오후 1시 30분
 - 주부 섬서대학 : 에레미야 ①
 - 교육관 신축 목주기도 : 소제-2,165단 누계-101,255단
 - 건축헌금(납입자) 200만원-이정선, 10만원-참기를 판매 이익금(성모회), 4만원-익명, 3만원-최규화·서금순, 2만원-오영걸·이경애·장옥자·함영철, 1만원-권정순·김용암·익명
- 지난주 봉헌금 : 443,250원 교무금 : 778,000원 건축헌금 : 2,310,000원